한국 탁구 '세계 정상' 복귀의 시작

프로탁구리그 내일 팡파르… 5개월간 대장정 돌입
여자 춘추전국시대…남자 삼성생명·상무 우승 경쟁

한국 탁구인들의 염원이던 한국프로탁구리그(KTTL)가 역사적인 첫 시즌을 시작한다.

2022 두나무 KTTL 정규리그가 28일 수원 광교씨름체육관 안에 마련된 전용 경기장 '스튜디오 T'에서 열리는 여자부 명문 대한항공과 포스코에너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 유남규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유승민 탁구협회 회장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한국 탁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경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탁구인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수들이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많은 경기를 정기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탁구 출범에 애를 써왔다.

KTTL이 한국 탁구의 세계 톱레벨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탁구인과 팬들은 기대한다.

기업팀과 국군체육부대로 구성된 코리아리그(1부 리그)와 지방자치단체팀으로 꾸려진 내셔널리그(2부 리그) 총 27개 팀이 총 222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 뒤에는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코리아리그 남자부는 KGC인삼공사, 보람할렐루야, 미래에셋증권, 국군체육부대,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생명 등 7개 팀, 여자부는 삼성생명, 포스코에너지, 한국마사회, 대한항공, 미래에셋증권 등 5개 팀이 경쟁한다.

내셔널리그 남자부에서는 서울시청, 부천시청, 안산시청, 인천시설공단, 제천시청, 영도군청, 산청군청 등 7개 팀이, 여자부에서는 안산시청, 수원시청, 대전시설관리공단, 파주시청, 금천구청, 양산시청, 포항시체육회, 장수군청 등 8개 팀이 경쟁한다.

코리아리그 여자부는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경쟁 구도를 보일 것이라는전망이 나온다.

최대 관전 포인트인 여자 탁구 '신구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의 자존심 대결이 개막전에서 불발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코리아리그 남자부에서는 국가대표 이상수, 조대성, 안재현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장우진, 조승민이 있는 국군체육부대가 우승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경기는 '5매치·3게임제'로 치러진다. 1·2단식, 3복식, 4·5단식 순서로 매치가 진행되며, 각 매치는 5게임이 아닌 3게임으로 구성된다.

매치 스코어가 3-0인 경우, 경기를 끝내지 않고 네 번째 매치(4단식)를 진행하는 점도 독특하다.

매치 스코어 4-0으로 승부가 갈리면 승리팀에만 승점 4점을 주고, 3-1이나 3-2로 끝나면 승리팀에 승점 3점, 패배 팀에 승점 1점을 준다.

한국 전통 건물의 특징을 담은 '꽃가마' 탁구대에서 드라마가 펼쳐진다. 연합뉴스

2022 시즌을 준비하는 제주유나이티드 남기일 감독(왼쪽에서 네번째)과 코칭 스태프.

'남기일 사단' 시즌 3 스타트

제주Utd 코칭스태프 개편

2022 시즌을 앞두고 제주유나이티드가 코칭 스태프 개편을 완료했다. 내부 승격과 최적의 외부 영입으로 '시즌 3'을 시작한 '남기일 사단'은 올 시즌 또 다른 '주황색 봄날'을 꿈꾸고 있다.

남기일 감독과 함께하는 제주의 코칭 스태프는 이른바 '남기일 사단'으로 불린다. 2020 시즌에서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 2021 시즌에서는 K리그1 파이널A 진출(리그 4위)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26일 제주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마철준 2군코치가 새로운 수석코치로 승격했고, 2군코치로 전남 드래곤즈와 산시창안(중국)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김효일 코치가 합류했다.

피지컬코치는 지난 시즌까지 강원FC에서 선수단 관리에 강점을 보였던 장석민 코치가 새롭게 맡는다.

2020 시즌 종료 후 현역 은퇴와 함께 남기일 사단에 합류한 정조국 코치와 기우성 골키퍼코치는 기존 보직을 유지한다.

남기일 감독은 "제주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마철준 2군코치가 수석코치로 중심을 잘 잡아주리라 기대한다"면서 "새롭게 가세한 김효일 2군코치와 장석민 피지컬코치도 워낙 좋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팀 전력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이 볼은 내 거야" 25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 NBA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기는 미네소타가 109-107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축제는 끝났다"… 순위 경쟁 재개

V리그 현대건설 최다승 임박
남자부는 치열한 혈전 예고

화려한 춤사위로 올스타전 축제를 즐긴 한국프로배구 V리그 선수들이 다시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인다.

축제는 끝났다. 달콤한 올스타 휴식기를 즐겼던 V리그는 28일부터 정규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팀당 12경기가 남은 상황, 봄 배구를 향한 전력 질주가 펼쳐진다.

여자부 1위 현대건설은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운다.

V리그 최초로 단일시즌 2회 10연승의 진기록을 작성한 현대건설은 2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방문 경기를 시작으로 승수 쌓기를 재개한다.

역대 여자부 최다승과 최다 승점 기록도 곧 경신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28일 흥국생명전, 31일 페퍼저축은행전에서 세트 스코어 3-0 또는 3-1로 승리하면 승점 74로 IBK기업은행 기록을 넘어선다.

2월 4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면 여자부 최초 '단일시즌 26승 달성'에도 성공한다.

또한 5라운드에서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GS칼텍스를 모두 꺾으면 2월 9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여자부 단일리그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쓴다.

남자부는 최하위 OK금융그룹도 포스트시즌 진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로 치열한 순위 다툼이 펼쳐지고 있다.

1위 대한항공(승점 46·15승 9패)도 아직은 여유를 즐길 수 없다. 2위 KB손해보험(승점 41·12승 12패)은 1위 추격과 중위권 견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

2라운드까지 승점 12(3승 9패)로 최하위였던 우리카드가 3·4라운드에서 승점 26(8승 4패)을 쌓아 3위(승점 38·11승 13패)로 올라선 사례는 중하위권 팀들에게 희망을 안긴다.

한국전력(승점 36·13승 11패), 현대캐피탈(승점 34·12승 12패), 삼성화재(승점 29·10승 14패), OK금융그룹(승점 28·11승 13패) 모두 '봄 배구'를 꿈꾼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제주도축구협회는 제21대 회장 취임식 및 축구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제주국제대·FC제주 최우수단체 선정

'축구인의 날' 행사 개최

제주국제대학교와 FC제주가 2021년 제주 축구를 이끈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제주도축구협회(회장 윤일)는 지난 25일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 제21대 회장 취임식 및 축구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 제주도축구협회 발전에 기여한 선수와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제주국제대와 FC제주에게 최우수단체상이 수여됐으며, 한정효(제주제일고)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K리그1 득점왕에 오른 제주Utd 주민규가 기탁한 제주유소년발전기금이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오은지기자

K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숨터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KBS 뉴스2
14:30 2022 베이징올림픽 특집 다시 보는 동계올림픽 명승부
15:30 방과 후 초능력
16:00 사시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2022 신년특집 4부작 다음이 온다 4편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KBS2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불후의 명곡(재)
12:55 숨터
13:00 박원숙의 같이삽시다(재)
14:00 한 번쯤 멈출 수밖에(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또봇V(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17:15 티티 체리
17: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8:30 2TV 생생정보
19:50 사랑의 꽈배기
20:30 UHD 환경스페셜
21:30 주접이 풍년
22:40 한 번쯤 멈출 수밖에
23:40 꿀잼 영화가 좋다(재)

MBC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뚝딱구조대
12:00 12 MBC 뉴스
12:20 트레이서(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5:55 기분 좋은 날 (재)
16:55 5 MBC 뉴스
17:10 앙코르 제주MBC특선 월드 베스트 그 곳에 가면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특집 100분토론 선택2022
23:00 명쾌한 주

JIBS/SBS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신년특집 공생의 법칙 (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아머드 사우루스(재)
18:20 아머드 사우루스
18:50 포커스 인 제주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그 해 우리는 : 더 무비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EBS1
8:00 딩동댕 유치원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EBS 부모
14:10 명의
15:0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16:15 한글용사 아이야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21:50 이것이 야생이다

KCTV
7:00 KCTV 뉴스
8:0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수상작
9:30 제주형 문화예술전문인력
10:20 KCTV 건강톡톡
12:30 세계의 99밥상
13:10 청정 제주의 기초과학
14:30 디플로맷 토크
15:20 제주형 문화예술전문인력
16:10 KCTV 다큐스페셜
17:00 KCTV 뉴스
20:50 KCTV 건강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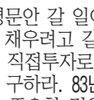
제주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3:30 생명의 샘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7일


김종상 지단(知丹)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4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해 피곤. 전문직은 인정받고 일이 많아진다. **60년** 함께 모여 기쁨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 술은 자제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72년** 집안에 근심이 있으니 안부전화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84년** 친구 따라 가서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37년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구설이 된다. **49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61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한 변동, 이동 보다는 신중함이 이익이다. **73년** 문서와 관련된 업종은 꼼꼼함과 신중함 필요. 철저한 재확인 요망. **85년**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38년 위장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음식에 주의해야 한다. **50년** 집착하면 오히려 일이 막히니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함. **62년** 뜻밖에 귀인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른다. **74년** 갑작스런 일에 놀라거나 걱정스런 소식을 접하니 스트레스 극히 조심. **86년** 부모님이 걱정하니 편안하시도록 전화를 드려라.

39년 방해자가 있어도 지혜롭게 극복하면 순조롭다. **51년** 만남에 참석한다. 공동의 관심사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라. **63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되니 여유와 신중함이 필요한 날. **75년** 새로운 계획 창출. 의욕이 강하다. 하지만 무리한 창업이나 계약은 금물. **87년** 집중력 있는 시간대에 공부하고 휴식도 챙기길.

40년 음주는 적당히. 자녀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52년** 자녀를 위한 일이나 금전문제로 신경전이 생기니 미리 준비를. **64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애정 문제에 배려 필요. **76년** 직장, 이성문제는 순조롭고 기쁨이 따르니 약속이 이뤄지면 만나라. **88년** 모임 등에서 튀고 싶어한다. 조금은 자중하라.

41년 전문성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 **53년** 의욕에 비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65년**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영역이 넓어진다. 개인사업자는 유리. **77년** 갈증이 많이 나니 수분 또는 야채섭취가 필요. 술은 적당히 마셔라. **89년** 인적자원이 절실하고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42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54년** 이익이 발생 되고 활동도 넓어진다. **6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78년** 업무량이 늘고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업무 능력은 인정받는다. **90년** 분실 또는 건망증이 올수 있다. 외출시 물건, 지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43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55년** 상대가 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해주니 이럴 때일수록 책임완수가 필요하다. **67년** 과장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다가 들통이 날 수 있다. **79년** 자신이 생기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점차 노력한다. **91년** 행복도 불만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44년 사업장이나 활동에 능률이 저하되거나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6년** 음식업이나 손으로 하는 업은 인기가 많다. **68년** 활동량이 많아지고 생산이 증대되니 또한 기쁘다. **80년** 경쟁하지 마라. 자존심이 상한다. 이겨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92년**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으로 이상이 오거나 근육통이 생긴다.

45년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도난을 조심하라. **57년** 영업에 이익이 있고 동업자나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69년** 반길·반흉이 있으니 오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정중히 거절하라. **81년** 친하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간에 의견 마찰로 헤어짐도 있다. **93년** 친구들 문제로 마음 상하고 고민이 많다.

46년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인덕을 한탄한다. **58년** 가까울수록 예의와 신용이 중요하니 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70년**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윗사람에게 공손하라. **82년** 취업이나 시험에 불리하니 중요한 사안은 다음으로 연기하라. **94년** 친구와 함께 나눠 먹을 일이 생긴다.

47년 문상,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술은 자제 필요. **59년** 부족함을 채우려고 갈망한다. 이성, 직업에서는 무난하다. **71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서 자문을 구하라. **83년** 분실 또는 건망증이 올 수 있다. 외출시 중요한 것은 두고 가라. **95년** 집안에 할 일이 많아지고 좋은 소식도 온다.